

구례군, 양봉농가 신기술

실용화 컨설팅 실시했다

변화하는 양봉기술 향상 신속히 대처
고품질 유기농 양봉 산물 대량생산 등



구례군은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흥보관에서 지역 양봉농가 80여명을 대상으로 양봉 신기술 실용화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최근 변화하는 양봉기술 향상에 신속히 대처하고 고품질 유기농 양봉 산물의 대량 생산 및 실패 없는 꿀벌 관리요령,

겨울나기 보온상자 보관법, 프로폴리스 채취, 응애 구제, 항생제 오남용 사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겨울철 봉군 관리시 노지에서 겨울나기 포장을 할 경우 바닥에 비닐을 깔아 습기와 냉기가 벌통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 막아야 하며 찬바람이 몰아치는 지형에 벌통을 두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노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양봉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화분, 로열젤리 등은 인체 면역력 강화와 신진대사 개선작용에 효과가 있고 자연으로부터 얻은 천연 항생제로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며 “청정지역 구례에서 기른 우수한 꿀벌을 양봉농가의 신소득 원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나주시, 대민 업무 공공갈등관리 역량 키운다

대민 업무 직원 150여명 대상 교육 실시



대한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강사는 국무조정실에서 지정한 갈등관리 연구기관인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김강민 교수를 초빙했다.

김 교수는 △공공갈등관리가 어려운 이유 △주민들의 선입관 △갈등을 높이는 문장 △공공갈등 일반 구조 현황 △지역별 분쟁 분포 및 지속기간 △타 지역 갈등관리 수단 △갈등영향분석 및 조정에 대한 이해 등 시례 중심의

공공갈등과 갈등조정 시스템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나주시는 지난 2013년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 체계적인 갈등 관리를 위한 공공갈등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위해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한 실무자의 갈등 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을 통해 막연하기만 했던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형식 담양군수,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위해 총력



담양군이 내년도 국비확보에 시합을 걸고 국립한국정원센터를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이 국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형식 군수는 지난 5일 이개호, 서삼석, 송갑석 의원사무실 방문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생태정원도시를 지향하는 담양군에 담양다움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

서는 국립한국정원센터 건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국회심의과정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아울러 신계정수장 개량사업, 국도 13호선 대치교차로 개선사업 등 담양군의 당면한 현안과제들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년도 국비예산 지원에 국회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당

부했다.

한편 국립한국정원센터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일원에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달 터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신계정수장 개량사업은 신계정수장의 이전설치로 현재 진행중인 정수 증설과 통합 건설을 도모함으로써 정수기동률을 높이고 적수발생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과 담양을 명실상부한 생태정원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비 확보는 필수 요소”라며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까지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영광군 “겨울딸기 월동

준비 이렇게 하세요”

영광군은 이번 겨울, 때 이른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겨울딸기에 대한 난방과 보온을 철저히 하여 저온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요즘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기온변화가 매우 심한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농작물 생육 부진과 병충해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연료점화 및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저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특히 노후된 하우스는 단열이 잘 되지 않아 과도한 난방기 사용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추운 겨울 한파에 대비해 수막 이외의 보조난방기를 준비하여 시설 내 밤 적정온도를 8°C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1회방 수정이 완료된 후 저온기 발생하는 잣빛곰팡이병, 꽃곰팡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용작물보호제를 살포하여 저온에 의한 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관계자는 “겁증된 신기술, 신품종을 도입하고 스마트팜 활용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딸기 재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서편제 본고장’ 보성군, 제2의 도약기

국악 특화 프로그램 운영

보성군은 지난 8월부터 10월말 까지 보성소리 계보를 있는 명창들이 총출동해 서편제 본향 보성소리를 알리는 국악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7,000여명의 관광객 및 군민들이 참여해 서편제 보성소리를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진행된 ‘우리가락 얼씨구 학당’은 명창들이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보성소리 교육했다. 총 144회 동안 4,320여명에게 우리가락을 알렸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고장 문화를 보전·계승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판소리성지에서 진행된 보성소리의 향연 ‘너울’(토요상설·예술체험교육)에는 지역예술인, 전통계승 명창, 소리축제 대상 수상자 등이 대거 참여하여 국악의 진수를 펼쳐보였으며, 800여명(총15회)이 관람 및 예술 체험 교육에 참여했다.

‘명창들과 함께 떠나는 보성소리 여행’은 9월부터 운영(4기)하여 광주, 순천, 목포, 남원 등에 국악 애호가 100여명이 참여하여 판



소리 명소를 탐방하고, 구성진 보성소리를 체험하고 돌아갔다.

특히, 매년 진행되고 있는 서편제 보성소리 체험 프로그램에는 2,000여명이 참여해 전문예인들로부터 국악 발전과 대중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성소리 제2의 도약기 마련의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우수인재육성 및 국악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남도를 대표하는 국악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8일에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제22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대통령상 수상자 공연이 예정 돼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보성군청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인구일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전경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부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전청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당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